

주일의 말씀

십자가 사랑과 부활



최종현 베드로 신부
경산성당 주임신부

세상에는 겉으로 보면 사랑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쉬운 사랑은 자기중심의 사랑이고 어려운 사랑은 타자중심 더 나아가 사랑의 원주인이신 하느님이 알려주신 사랑입니다.

많은 이들은 Like와 Love를 혼돈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의 사랑은 대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성격 장점은 물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를 따져보고 선택 하는 사랑입니다. 유리하면 따라가고 불리하면 거부하는 상업적 사랑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상대의 좋은 점 뿐 아니라 상대의 부족함과 결점 허물은 물론 나에게 짐이 되고 실망과 고통을 안겨 준 것까지도 참아주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은 누구든 차별이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잘 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자 못 가진 자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도 바리사이파나 유대인 같은 당신을 박해하고 고소하는 사람들도 배신자였던 베드로와 유대마저도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초월의 사랑입니다. 감성과 이기심을 내세우며 세상풍류를 따라가는 사랑은 아래로 흘러가는 물결처럼 쉽고 타인을 위하고 하느님을 섬기

는 사랑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에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믿는 일은 쉽지만 믿음의 생활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일곱 형제들이 있지만 홀로된 병든 어머니를 모시길 부담스러워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의 명령을 알고 있는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셔다 정성껏 돌봅니다. 그 며느리는 주님 때문에 사랑의 짐을 졌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사랑 때문에 힘든 짐을 져야하고 손해도 봅니다. 신앙인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나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해야 하는 괴로움도 겪고 때론 사랑 때문에 침묵하고 인내하고 박해를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 때문에 저야할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만듭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간을 향한 주님의 처절한 사랑의 승리요 영광입니다. 내가 귀찮고 내키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하느님 때문에 사랑을 실천한다면 나로 인해 하느님이 높이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의 삶은 부활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십자가로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 사랑을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항상 청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참조

사도14,21ㄴ-27 묵시 21,1-5ㄱ 요한 13,31-33ㄱ,34-35

성모당이 궁금해요. 3

교구 사목국

성모당에 얽힌 사연들 궁금하시죠?

성모당에는 이런 재미난 사연이 있습니다.(지난 주 보에 이어서)
넷째, 손수 감사의 글귀를 새기신 주교님.

드망즈 주교님은 1918년 5월 30일 동굴 정면 제일 위쪽에 아주 큰 글씨로「1911 EX VOTO IMMACULATAE CONCEPTIONI 1918」(1911년 무염시태의 성모에게 한 서약에 의해, 1918)이란 글자를 새기셨는데, 글자를 새기기 위해 설치한 발판대에 손수 오르고 그 발판 위에서 오전 내내 글귀를 새기셨다고 합니다. 성모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한 대교구를 사랑하시는 주교님의 지극한 애정과 아름다운 모범이 성모당에 깊이 새겨져 있는 듯 합니다.
성모당 제일 위쪽에 크게 새겨진 글씨를 볼 때마다 손수 발판에 오르시어 정성을 다해 한자 한자 글귀를 새기시던 초대교구장님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성모당 성모님 상에는 이런 아름다운 사연이 있습니다.

성모당의 루르드 성모상은 일본 고베로부터 발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의 없고 무성의한 포장으로 말미암아 성모상이 현해탄을 건너오면

서 무려 80여의 조각으로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얼굴과 손은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하니 참 놀라운 일이죠. 중국인 기술자들이 조각들을 제자리에 다시 붙이고 성모상을 시멘트로 수선하였답니다. 1918년 10월 5일에 성모상이 조각난 자국 하나 없이 다시 깨끗한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어 성모당에 모셔지게 되었답니다.

예의 없고 무성의한 우리의 부주의와 불성실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찢기시는 어머니 성모님의 마음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합장하고 서 계신 성모님을 보실 때마다, 그렇게 부서지고 조각났던 어머니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구장 드망즈 주교님은 루르드 성모님을 교주 주보로 모시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모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청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도우심을 추호도 의심치 않고 믿겠다고 하시면서 그런 믿음으로 복음화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물질적인 걱정 때문에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드망즈 주교님은 모든 걱정을 성모님께 맡기고, 교구의 복음화를 위해 꼭 필요했던 주교관 건축과 신학교 건립과 주교좌성당의 증축을 오로지 믿음과 열정으로 모두 다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구의 많은 신자들이 즐겨 찾고 사랑하는 성모당에는 이런 아름다운 사연과 숭고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멋지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부활 제5주일

입당성가

129 알렐루야 노래하자.

화답송

◎ 저의 임금 하느님, 영원히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파견성가

35 나는 포도 나무요.

영성의 향기

::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를 믿고 거행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 가는데 이 관계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저에게는 기도가 마음의 악동이며 하늘을 바라보는 단순한 눈길이고 기쁠 때와 마냥가지로 시련을 겪을 때에도 부르짖는 감사와 사랑의 외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이며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기도의 기초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으로 오늘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 목마름의 만남

예전에 우리는 물을 길으러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만나시려고 우리가 물을 길으러 나가는 우물가로 나오십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마실 물을 달라고 우리에게 먼저 청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갈망하시며 깊이 목말라 하십니다. 기도는 이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 목마름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청원 기도는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응답이며 예수님 목마름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마음이 아름다우면



캘리포니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만병통치의 샘이라 부르는 성 브리지드 샘이 있습니다. 성 브로나치 기념 축제 전날 밤에 이 샘물로 얼굴을 씻으면 젊고 아름다워진다는 전설 때문에 해마다 축제일이 되면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이 보이지 않았던 한 소녀는 축제 전날 밤에 이 샘물에 눈을 씻은 뒤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두 눈을 뜬 후 못생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실망한 소녀는 다시 한 번 샘에 무릎 꿇고 자신을 아름답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샘물에 얼굴을 씻으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위가 밝은 빛으로 가득 차더니 샘물 위로 희미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눈에서 빛나는 영혼이다. 늘 아름다운 일만을 생각하고, 모든 풍경이나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그것들을 좋아하도록 하라. 질투, 시샘, 복수 같은 어리석은 감정들은 못생긴 표정을 낳을 뿐이다. 그것들을 모두 버리고, 너의 마음에 따라 몸을 가꾸어 좋은 자질을 갖도록 하라.' 소녀는 샘물에 얼굴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마음에 새긴 그녀의 얼굴은 이미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음을 아름답게 하면 외모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 유평은 글입니다. -

★ 모임행사 ★

시편성가연수(Sr.김정선,발성법(박재연)회비1만원

• 일사: 5.2(일) 15:00, 장소: 가톨릭음악원(255-4847)

안중근-토마스 순국100주년 추모 음악회

• 일사: 5.6(목) 19:30, 시민회관대강당(전석초대)

• 출연: 대가대 교수, 학생합창단, 교향악단

떼제기도회

• 일사: 5.8(토) 20:00, 장소: 삼덕 젊은이성당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34주년 돌잔치

• 기념미사 및 축하식: 5.15(토) 19:00, 대안성당

• 문의: 255-1582(14:00~22:00)

2010년 한국 청년대회(Korea Youth Day)참가신청

• 일사: 8.12(목)~15(일), 신청마감: 5.30(일)까지

• 장소: 의정부 교구(임진각 평화누리 외)

• 신청방법: 대구대교구KYD클럽

(http://club.cyworld.com/kyd2010-dg)

• 신청문의: 삼덕젊은이성당 422-6691

★ 성소모임 ★

콘벤투알 프란치스코회 성소모임

• 일사: 매월 둘째 일 14:00, 월배수도원

• 문의: 010-5064-7467

전교가르멜수녀회 '베드라' 성소모임

• 일사: 6.27(일), 7.25(일), 8.22(일), 9.26(일) 14:00~17:00

• 장소: 대명동 '가르멜수도원'

• 문의: 010-2646-7765(www.carmis.org)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성소모임

• 일사: 매월 둘째 토 15:00~18:00

• 장소: 부산 남침성당 앞 북카페

• 대상: 고등·대학생·일반 (02-744-4702)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모임

• 일사: 매달 둘째 토 14:00, 관덕정 순교기념관 성당

• 문의: 011-9319-1690(성소상담 언제나 환영)

★ 피정 ★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피정(2시시작~2시끝남)

• 일사: 5.14(금)~16(일)/9.27(일)~29(수)

• 장소: 경북 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 지도신부: 최봉도, 대상: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 신청 및 문의: 054-971-0722/010-5613-1762

(http://innerheal.kr에 따라 준비하고오시면 좋습니다)

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불피정

'하느님 그리고 나'

• 일사: 1차 5.15(토) 16:00~16(일) 17:30, 마감: 5.10(월)

• 2차 6.5(토) 16:00~6(일) 17:30, 마감: 5.31(월)

• 회비 및 준비물: 1만원, 사면역 산악경쟁, 마사쏘, 팔기구

• 문의: 659-3404/011-803-8973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해바라기 불피정

• 일사: 5.15(토) 17:00~16(일) 15:00

• 장소: 부산 성분도 은혜의집

• 대상: 35세 미만 미혼여성

• 문의: 010-9510-1131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피정

• 성직, 수도 입문 피정: 5.24(월)~28(금) 4박5일

• 입문 피정: 6.23(수)~27(일) 4박5일

• 문의: 연화리 피정의 집 054-973-4835/011-542-4835

★ 모집 교육 ★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영어연수

• 일장: 7.18(일)~8.28(토) 6주

• 대상: 초4~중3(35명), 장소: 필리핀 바콜로드

• 문의: 656-6655(www.dgyouth.net)

• 대학생 해외봉사 & 어학연수 단체 출국 모집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모집(2010 후기)

• 모집전공: 회화, 도시환경조각, 교회미술,

시각 실내환경·도시환경 전시 디자인,

그리스도교미술사, 문화예술기획

• 원서접수: 5.10(월)~28(금)(www.uway.com)

• 문의: 032-830-7015(www.iccu.ac.kr)

가톨릭 선종 장례봉사자 교육(청통수련원)

• 일사: 매월 셋째 토, 일(1박2일), 참가비: 5만원

• 천주교전통장례예절/선종봉사자임무(40명)

• 문의: 대가대평교원 526-3413~5

제대 꽃 봉사자를 위한

전례 꽃꽂이 강좌 2학기 수강생 모집

• 개강: 5.11(화), 접수: 3.28(일)~5.3(일)

• 문의: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010-5501-4042/010-5156-8226

몽골선교지방분단모집

• 기간: 8.9(월)~12(목)

• 문의: 몽골선교후원회 042-256-4111

가톨릭 복음 선교 교육(사랑의 선교)

"내가 먼저 복음화 되어 사랑을

전하는 관계 선교 교육"

• 일장: 5.22(토) 10:00~23(일) 17:00

• 장소: 정하상교육회관(010-9558-7112)

• 대상: 모든 신자(단체장 포함) 1인11만원

★ 안내 ★

교구 법원 공시(253-9550)

•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김승호(마르티노), 김영화(아네스)

• 일사: 5.9(일)까지, 장소: 교구 법원

미 사	일 시	장 소
밀알후원회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5월 3일(월) 오전 11시	주교좌계산성당
군종후원회 미사	5월 3일(월) 오후 2시	성모당
5대교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3일(월) 오전 11시	신평성당

미 사	일 시	장 소
꾸르실리스마 월례미사	5월 3일(월) 오후 7시30분	꾸르실료교육관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미사	5월 3일(월) 오후 10시	한티순례자의집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5월 6일(목) 오후 2시	성모당
미화회 미사	5월 7일(금) 오후 2시	성모당

3대 64년 전통
다이아몬드 예물전문

미성당 귀금속

보석강령 무류서비스 실시, 심플 다이아몬드

커뮤니케이션 (가사강좌를 받고요 세요)

미국의 석회와 공인 국제보석감사장 박재현(비오)

629-9090, 011-541-5415

앞산 순환도로 (구정북부) 미성당 앞산 내거리

성모아이한의원

• 잦은감기(열, 비염, 천식, 중이염)

• 틱, ADHD, 식욕부진, 성장

• 난치성 아토피

• 언어(발달)장애, 자폐

대표원장 김 성 철 (비오)

지하철 2호선 성서공단역 8번 출구

☎ 592-1275, 593-1275

도우미 익스프레스

포장이사, 사무실이사, 일반이사

대표 양 말 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성가정을 위한 결혼 정보

성가정결혼상담소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474-0025, 476-9275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지하철 입구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바오로) 011-514-3855

효경요양보호사교육원

(노인복지센터 운영)

◎ 교육생 모집 ◎

• 국가자격증 무시험 자격취득

• 신규반, 경력자반, 재직자(무료)교육반

• 자격증반(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 교육원: 557-9057, 474-1577 ☎: 564-1577, 475-1577

서비스 이용문의: 010-3153-9057

천제명 홍삼

홍삼톤 F60포 (1+1)행사

홍삼순액, 절편홍삼농축액, 어린이홍삼

30%~10%

이옥이(실비아) 053-793-5325

이원 의료기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 판매

혈압계, 혈당계, 휠체어, 안마기, 침, 부항

변상범(도미냐노) 김인숙(아나타)

경대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